(2023. 10. 20)

산업분석 Vol. 123

주요 완성차 업체의 스타트업 투자 방향

산업분석실
임현진 선임연구원

KATECH Insight

◈ 완성차 업체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 걸친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, 투자 분야는 전기차, 자율주행 외에도 우주·항공, 로보틱스, 에너지 등 다양한 영역을 망라

◈ 최근 자율주행, 승차공유 등의 분야 대신 전기차 및 공정 자동화 관련 투자에 집중하는 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, 이외에도 탄소중립·친환경 관련 투자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

» 완성차 업체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혁신 기술 및 아이디어를 지닌 스타트업을 발굴하고, 다양한 분야에 걸친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

* 본 보고서는 Crunchbase에서 제공하는 5개 완성차 그룹(GM, Toyota, BMW, Geely, VW) 본사 및 본사에서 운영하는 벤처투자사의 `19년부터 `23.9월까지의 투자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

• Geely, GM, BMW 등 여러 완성차 업체는 자사 내에 벤처 투자 조직(Volvo TechFund, GM Ventures, BMW i Ventures 등)을 설립하여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을 적극 발굴·투자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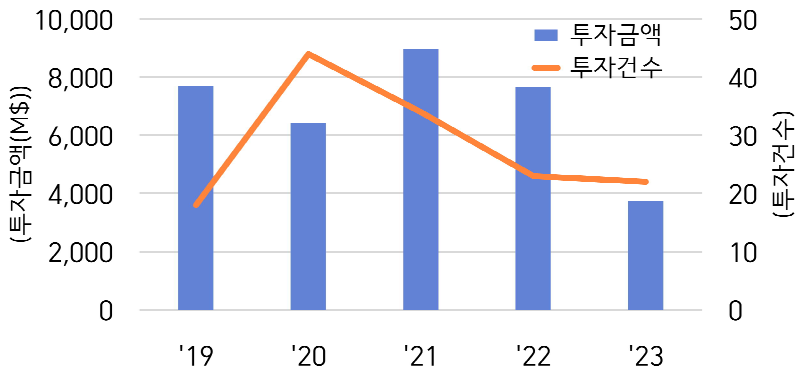
- 5개 완성차사는 `19~`22년 동안 연간 평균 $30,709백만을 투자하였으며, 이 중 시드 라운드 투자, 벤처 라운드 투자(Series A~F), 기업 라운드 투자가 각각 0.3%, 44.3%, 23.0%를 차지함

* 시드 라운드(Seed round)란 극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제품의 프로토타입 등을 생산하는 단계에서 진행되는 투자로, 일반적으로 $2백만 이하의 투자를 일컫었으나 최근에는 이보다 규모가 큰 투자가 자주 진행됨

* 벤처 라운드(Venture round)는 Series A, B, C 등으로 이어지는 투자 라운드로서, 일반적으로 Series A, B는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 투자(약 $1백만~30백만), Series C 이후의 단계는 사업을 확대하는 단계의 스타트업 투자($10백만 이상)를 의미

* 기업 라운드(Corporate round) 투자는 일반적으로 벤처캐피탈이 아닌 기업의 투자를 일컬으며, 종종 기업 간 파트너십 체결을 위한 투자를 의미하기도 함

▌5개 완성차 업체의 연도별(左), 투자 라운드별(右) 투자금액 및 투자건수 ▐



투자 라운드	투자금액 ('19~'23.9)	투자건수 ('19~'23.9)
Seed	103	21
Venture	15,243	151
Corporate	11,170	12
기타	7,913	21
합계	34,428	205

» 스타트업 투자는 크게 ①내·외부 자원의 결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이 기대되는 분야, ②기존 사업영역에서 벗어나지만 앞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투자로 구분 가능

• 완성차 업체는 전기차, 자율주행 등 미래차 분야, 공정 자동화 및 효율 향상을 위한 투자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, 이를 통해 비교적 단기간 내 성과 달성 및 사업역량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음

- 공정 자동화 분야에 꾸준히 투자해오고 있는 Toyota는 '21년에는 전체 투자금액의 약 8.6%를 관련 분야에 투자하였으며, 최근 디지털트윈, 로봇 기술 등을 활용한 공정 자동화 및 효율 개선 기술을 공개하였음

• 완성차사가 투자한 스타트업의 분야는 전통적인 모빌리티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, 유망 비즈니스 기회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주·항공, 로보틱스, 에너지, 식품 등 다양한 영역을 망라

- Toyota는 세포 기반 배양육 기업 Vow, BMW는 탄소포집을 통한 친환경 대체 연료 기업 Prometheus Fuels, GM은 여러 개의 터빈을 이용한 해상 풍력발전기 기업 Wind Catching Systems에 투자하는 등 완성차사는 현재 단계에서 모빌리티와 직접적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분야에도 투자하고 있음

» 완성차 업체별 투자 내용을 살펴봄으로써, 각 업체의 전략 분야 및 사업모델 등을 일부 유추해볼 수 있음

• (GM) Cruise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(59%)이 타 완성차 업체에 비해 높게 나타남

- 자율주행 관련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빅데이터 수집·분석(Wejo, INRIX), 보안 관리(Silverfort, Keyfactor) 외에도 재난·안전 관리 분야(RapidDeploy)에 대해서도 투자 중

• (Toyota) 수소, 항공·우주, 농업, 선박, 탄소저감 등 상대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해 투자하고 있음

- 친환경 수소 생산 기술(Ecolectro), 수소연료전지 항공기(Universal Hydrogen) 등 광범위한 수소 관련 투자와 농기계(Agtonomy, Burro), 선박(Sea Machines Robotics) 자율주행 스타트업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수소 및 자율주행 산업의 확대를 추진 중

- 탄소저감 기술과 관련하여 타 업체는 친환경 소재 개발 및 소재 재활용 등에 집중한 반면, Toyota는 탄소 측정(Yard Stick) 및 포집·저장·활용(Living Carbon, Brilliant Planet, Air Company) 기술, 탄소배출 거래 플랫폼(Nori) 등 탄소저감 관련 투자를 다방면으로 진행 중

• (BMW, Geely) 친환경 부품·소재 개발 및 공급망 관리, 순환경제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가 두드러짐

- (BMW) AI(Alitheon, Verusen) 및 블록체인(Vendia)를 활용한 부품 식별·추적 및 공급망 관리, 친환경·저탄소 소재 개발(Natural Fiber Welding, Bcomp), 소재 재활용(Cyclic Materials), 제품 개발 플랫폼(Synera, Xometry) 관련 투자가 '19년~'23.9월 전체 투자금액의 약 15%를 차지함

- (Geely) 친환경 소재 개발(Niron Magnetics, Bcomp), 블록체인 기반 부품 이력 추적 및 순환경제 지원(Circulor) 스타트업에 전체 투자금액의 약 5.4%를 투자

• (VW) 분석기간 중 투자금액의 대부분을 자율주행(26.4%), 전기차(64.7%) 관련 개발 기업에 투자

- VW는 '19년부터 친환경적인 배터리를 생산하는 Northvolt에 대해 대규모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, Northvolt에 대한 투자비중이 전체 전기차 관련 투자금액의 약 87%에 달함

» 한편 최근 완성차 업계의 투자 흐름 변화를 살펴보면, 승차공유 등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 대신 전기차 및 공정 자동화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에 집중하는 양상이 나타남

- '20년 이후부터 승차공유·셔틀 서비스 등에 대한 투자는 감소하고, 배터리 개발 및 광물 생산·가공, 등 전기차 관련 투자와 공정 자동화 관련 투자는 증가 추세를 보임

  - 승차 공유·셔틀 등 모빌리티 서비스의 성장가능성을 높게 평가해왔던 완성차 업계는 '19년 이후 관련 투자를 축소하는 경향*, Uber 등이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상황에서 더 이상 투자효율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

  * 5개 완성차 업체는 승차공유·셔틀 서비스 분야에 '19년 $850백만을 투자하였으나, '22년 이후에는 5개 기업 중 Toyota만이 승차공유 및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Revel에 투자하였음

  - 반면 전기차 배터리 및 전동화 부품 개발, 핵심 광물 생산·가공 등 전기차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은 '19년 15.9%, '20년 21.0%, '21년 40.7%, '22년 27.1%, '23년 75.1%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면서, 각 업체는 전기차 산업의 선두를 차지하기 위해 전기차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운영 중

  - 또한 비용절감 등을 목적으로 제조 자동화 관련 로보틱스, AI에 대한 투자도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

  * 5개 완성차사의 투자금액 중 '20년에 0.5%를 차지한 반면, '21년 1.6%, '22년 2.8%, '23년 5.6%로 확대

- 자율주행 기술 개발 분야에 대한 완성차 업계의 투자는 계속해서 진행되고는 있으나, '20년부터 전기차 및 공정 자동화 투자 비중이 확대되며 자율주행 관련 투자가 상대적으로 감소 중

  - 자율주행 부문에 대규모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GM을 제외한 4개 완성차사의 자율주행 부문 투자 비중은 '19년 49.3%, '20년 15.7%, '21년 14.6%, '22년 4.08%, '23년 1.3%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음

  * 반면 GM은 Cruise를 비롯한 자율주행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, GM을 포함할 시 자율주행 투자 비중은 '19년 64.9%, '20년 15.7%, '21년 15.7%, '22년 43.0%, '23년 1.3%를 차지

» 완성차 업체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모빌리티 생태계 확대를 추진해 왔으나, 현재의 전기차 및 자율주행 시장 환경을 고려하여 투자 포트폴리오를 수정할 것으로 예상됨

- 현재 각 완성차 업체는 전기차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위해 전기차 관련 기술 개발을 통한 차량 품질 향상, 생산·공정 효율 제고를 기반으로 한 비용절감 등이 중요한 상황

- 이에 기존에 투자 비중이 작지 않았던 자율주행, 모빌리티 서비스, 오토 커머스, 우주·항공 등에 대한 투자는 감소하고, 상대적으로 전기차, 공정 자동화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

  - 배터리 및 전동화 기술 개발, 배터리 핵심소재 확보, 공정 효율향상을 위한 AI, SW 및 로보틱스 분야에 대한 투자는 '23년 하반기 및 '24년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

- 한편 완성차 업계에 대한 탄소중립, 전과정평가(LCA) 요구·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, 친환경 소재·부품의 개발 및 재활용·재사용, 순환경제를 위한 플랫폼 개발 등에 대한 투자 또한 확대될 것으로 예상